

작품 내용

제 목	기억 속에 담긴 시간
내 용	"오늘도 찍으러 가?" 2126년 7월 12일 일요일 새벽 다섯 시.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던 나는 엄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다녀올게요!." "주말인데 참 부지런하다." 나는 웃으며 집을 나섰다. 목에 걸린 메모리캠이 가볍게 흔들렸다. 메모리캠. 몇 년 전 처음 출시된 뒤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은 장치였다. 사진이나 영상만 기록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메모리캠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덕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억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기억을 공유했고,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며 본 풍경을 올렸다. 인기 있는 기억은 수백만 명이 체험했다. 하지만 나는 유명한 기억보다 평범한 기억을 좋아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던 기억, 시험이 끝난 날 친구들과 웃었던 기억,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던 기억, 그런 순간들이 이상하게 더 오래 남았다. 그날 내가 향한 곳은 동네 뒷산이었다. 유명한 장소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었다. 그냥 해가 뜨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메모리캠을 켜다. 잠시 후 수평선 너머로 햇빛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새들이 날아갔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 바람 소리도, 조용한 아침의 공기도,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도, 모두 함께 저장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기억 공유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다. 조회 수는 평소처럼 많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기억을 보고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학원 쉬는 시간이었다. 민서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예린아! 이거 봐!" "왜 그래?" 민서는 휴대전화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별스타 사이트 인기 순위 1위 영상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내려앉았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했다. 언덕 위에서 본 아침 풍경, 새들이 날아가던 모습, 바람 소리, 심지어 해가 떠오를 때 내가 느꼈던 벅찬 감정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건 분명 내 기억이었다. 하지만 화면 아래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네 거 맞지?" 민서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내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것이었다. 그날 집에 와서도 기분이 이상했다.

화가 났다. 그런데 단순히 화만 나는 것은 아니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다.

나는 메모리캠에 저장된 원본 기억을 다시 재생했다. 언덕에 오르던 장면이 나왔다. 숨이 차서 잠시 쉬던 모습, 땀에 젖은 운동화가 신기해서 내려다보던 모습, 선풍기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순간,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간, 그제야 나는 왜 그렇게속상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사람은 풍경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 풍경을 만나기 위해 보낸 시간도 함께 가져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사이트에 신고를 접수했다. 며칠 뒤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상대방은 사과문도 올렸다. "죄송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면 출처를 남겼어야 했다. 적어도 그 기억이 누구의 것인지 말해 주어야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기억 영상을 올리는 일을 잠시 멈췄다. 괜히 의욕이 나지 않았다. 열심히 기록해도 누군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진로 체험 수업을 하던 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창작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죠. 중요한 건 그 안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생각해 보니 내가 좋아했던 것은 조회 수가 아니었다. 인기 순위도 아니었다. 좋은 순간을 발견하는 일이 좋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풍경을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억을 보고 잠시 웃어 주는 것이 좋았다.

그 주 주말, 나는 다시 메모리캠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다. 집 근처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강아지와 산책하는 아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평범한 풍경이었다. 나는 메모리캠을 켜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억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직접 걷고,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 한다고. 집에 돌아와 영상을 저장했다. 화면 아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평소에는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내가 걸어온 시간과 경험을 대신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미소 지었다.

아마 앞으로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훑히려 할 것이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정성껏 만든 기억과 작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나는 오늘도 새로운 기억을 기록한다. 언젠가 이 기억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풍경뿐 아니라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 걸어갔던 나의 시간까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